

www.kaeconomy21.co.kr

한국 시사 경제 21

Korea Sisa Economy

Cover Story

총선 그 후, 정치희망 살아날까?

GLOBAL COMPANY_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FOCUS_ 희망도시 만들어 가는 강경구 김포시장

BEST INSTITUTE_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R&D 주역들

SPECIAL TRAVEL_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의 선율에 빠지다

4월호

Contents

한국시사경제21 NO.20

Cover Story 042

총선 그 후, 정치희망 살아날까?

FUND & FUN

어린이 펀드 _010 사회초년생펀드 _011

목돈마련펀드 _012 연령대별펀드 _013

GLOBAL COMPANY

현대중공업 _014

삼성중공업 _016

FOCUS

INTERVIEW 강경구 김포시장 _018

첨단산업과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김포시 _022

김포상공회의소 이용우 회장 _026

삼마금속 _028 코반 _030

엔에스이젠 _032 디자인파크개발 _034

퀵아트 _036 예일IT직업전문학교 _038

원나인모터스 _040 새김포건설 _041

INSURANCE

생보사 특집 _049

SPECIAL REPORT

장애인고용촉진공단 _066

대한장애인체육회 _067

보조공학센터 _068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_070

에덴복지재단 _072



Contents

한국시사경제21 NO.20



066



112



074

SPECIAL TRAVEL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의 선율에 빠지다 _074

BEST INSTITUTE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R&D 주역들 _079

COMPANY FRAMEWORK

경영혁신으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대한주택공사 _098

MISSION

미완성출판사 _102

김포제일교회 _106

한가죽교회 _108

골프회원권시세 _110

BRIEF 기업단신 _112

FASHION

진화하는 명품시계라인의 2008 트렌드 러쉬 _114

NEW PR 신상품 _118

MOVE 영화 _119

BOOK 도서 _120



한국시사경제 21

회장 _ CHAIRMAN _ 장기태(ktjang@)
발행인 _ CEO&PUBLISHER _ 김의태(ekim888@)
편집인 _ EDITORIAL DIRECTOR _ 김종남(keo11@)

편집장 _ DIRECTOR _ 현광순(keco11@)

STAFF Reporter

허재 부장_권행원(keco11@)
신홍철(keco11@) 유정호(keco11@) 여순애(keco11@) 정용일(keco11@)
최현종(keco11@) 박진호(keco11@) 홍남기(keco11@) 임승민(keco11@)
정대윤(keco11@) 정승일(keco11@) 장영록(keco11@)

기획 1본부장 : 박철희

박재성

기획 2본부장 : 이관인

ADVERTISING & MANAGEMENT

부장 _ DIRECTOR _ 최상대(csd0078@)
관리 _ ADMINISTRATOR _ 함윤미(zzaham@)

Design & Printing 복지정보센터

발행일 2008. 3. 20 월간 제208
등록번호 서울라10885 2005년 11월3일 등록
발행처 복지포디커
주소 150-87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6 국영VP빌딩 5층
대표전화 02-781-2005 팩스 02-780-1315

한국경제21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경제21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2008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한국인(R&D)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경쟁력이 강조되는 요즘, 한미 FTA 등 다자간무역협정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기술력, 마케팅능력 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센터 선정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란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간 협력 지원체계를 유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원을 얻는다는 목표하에 정부지원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이다. 현재 지역혁신센터는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지역R&D클러스터사업, 지역특화센터, 우수연구집단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창업보육센터 등의 유관사업으로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센터에 선정되는 대학의 경우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자원과 협력관계를 구축 지역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대학 특성화 분야의 장 비구축 및 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개발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선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래경제의 희망을 제시하는 한국사사경제21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 기획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한국인(R&D)으로 지역혁신센터(RIC)의 성공적인 산·학 협력의 모델을 발굴, 이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또한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지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정대학의 면면과 이들 대학의 주요활동실적을 짚어보는 기회를 통해 대학발전과 인재육성, 기업경쟁력강화라는 세가지 목표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특별취재팀 임승민, 정대윤 기자



유비쿼터스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

첨단 IT산업의 미래로 불리우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나(anyone), 어떤 장비(anything)로도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고,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통신할 수 있는 환경, 즉 유토피아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4년 전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IT특성화의 선두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 이훈재은 바로 유토피아 시대를 앞당기는 중심에 서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체제의 모델을 제시해 온 것이다.



이훈재 단장

임승민 기자

형식적 산학협력체제 탈피, 지역산업체 맞춤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이제는 첨단 IT의 대명사로 인식되는데, 사업단이 선두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

람을 느낀다"는 이훈재 단장은 "그동안 전국대학 최초 유비쿼터스 체험관 개관, 강의실 환경 첨단화 구축, 산학협력 강화, 지역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한다. 사업단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기에, 이미 핵심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U-IT 교과과정 개선사업과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국제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사업, U-IT 인력 장학지원사업 및 시설장비 확보사업 등 성공적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사업성과를 만들어 왔다. 특히 지역밀착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단의 참여기관인 (주)신화정보통신, 신화엘앤지, (주)엔엘에스의 첨단 유비쿼터스 IT분야로의 사업아이템 다각화, 산학공동개발을 통한 개발 역량강화로 매출의 급성장이 이루어진 점은 사업단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는 부산의 U-City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사업단의 이훈재 단장은 "기존의 형식적인 산학협력체제에서 탈피하여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에 지역산업체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산학공동 교과목을 개설하였고, 산학협동프로젝트식 수업을 통해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실습, 취업과 연계하는 실질적인 인턴쉽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업단의 이 같은 시스템의 구축으로 3년간 평균 취업을 79.7%, 국제자격취득자 취업을 92%, 지역산업체 취업을 66.7%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역 IT업체들의 기술향상과 인력수급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동서대학교를 포함한 부경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등 3개 참여대학의 3년간





학생충원을 100%달성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차별화, 첨단 IT기술 습득과 국제 자격증 취득

사업단의 또 다른 성과는 바로 다른 사업단과 달리 해외연수 사업이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선진국의 첨단 IT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 해외 장기IT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 먼저 국내에서 원어반에 의한 집중 어학 및 IT연수를 수행한 후에, 현지 핀란드 오울루에 있는 오울루대학(자매대학) 및 노키아의 개발자가 강의와 실습(5개월 IT 수업 및 실습후 현지 업체에서 1개월간 인턴십을 수행)을 병행, 장기 IT연수 이수자 전원이 1개 이상의 국제 IT자격

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의 국제자격증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국제네트워크 자격증 CCIE/네트워크 관련 최고의 국제 자격증으로 국내 500명 이내) 취득을 지원, 12명의 보유자 및 CCNP/CCNA 자격증 취득자 400여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는 CISCO 트랙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대학 가운데에서도 전국 최대, 최다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이훈재 단장은 "누리사업단의 역할을 단순한 인력양성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술수요조사에 따른 기업이 원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적 전문가를 양성해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 4년간의 사업을 통해 구축한 유비쿼터스 IT의 저변확대,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 다양한 산학협동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혁신형 인재양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누리사업이 종료되어도 지속적인 특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이훈재 단장은, "유비쿼터스분야는 국가의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사업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평]**

